

설동훈 전북대 교수, 한국사회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사회학과)가 한국사회학회 제65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까지 1년이다.

한국사회학회는 1957년 5월 창립돼 사회학 연구 및 문화진흥 활동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설 교수는 '2023년 한국사회학회의 기조와 방향을 '파편사회' 극복의 사회학'으로 정했다"며 "포스트 팬데믹 원년인 내년에는 파편사회 극복을 위한 대안적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사회학의 유용성을 입증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편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학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설 교수는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대한방사선사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9일 AI뉴테크실에서 (사)대한방사선사협회와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측에서 조영기 회장을 비롯해 노지숙 연수원장, 김은성 전북도회장, 여경재 전남도회장, 신성진 광주시회장과, 전주비전대에서는 정상모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이원희 학사지원처장, 김범구 총무처장, 문용규 방사선과 교수,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 김미선 교육실장, 구본열/이승재 방사선과 교수, 김영인 현장설습지원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지방연수원(분원)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선보관 학문적 연구와 발전적 기술향상, 방사선사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기술 및 정보 개발, 지방연수원 개설을 통한 방사선사의 전문화 교육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관련한 다양한 비전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조영기 회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지방연수원 개설로 방사선사 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교류에 비전을 설정하고, 연수원 심화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 등에 협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상모 총장은 "방사선사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전주비전대민의 특성화 및 취업경쟁력 강화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복지시설에 사랑나눔 활동 전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미음)는 지역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지역밀착형 사랑나눔 활동을 지난 16일 전개했다.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연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성보육원과 전주연탄은행에 필요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지역복지 시설 후원아동 및 에너지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연말 사랑나눔 후원물을 전달받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2023년에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빨줄하고, 지역사회 내의 우체국 공직역할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북지방우정청 및 도내 16개 시·군 우체국 직원들로 구성된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2022년 지역 소외계층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후원물품 지원, 사랑의 집수리 활동 및 사랑의 연탄배달 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김영태 기자

“우리도 작가랍니다”

진안군 발달장애학생들, 직접 쓴 '함께 꿈는 꿈' 출판기념회

진안군 비영리민간단체 '보듬' 주관으로 지난 17일 진안군 문화의 집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이 직접 쓴 수기 글을 모은 함께 꾸는 꿈 책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자원봉사자의 지도 하에 매주 한 편씩 글쓰기를 해오며 이야기를 담아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발달장애학생과 가족,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책 출간을 축하했으며 아이들의 유튜브 도전기를 담은 영상과 아이들이 준비한 교육 발표회 등을 선보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조현희 센터장은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소중한 글이 모여 올해로 세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며 꾸준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 책을 통해 아이들과 한 걸음 더 소통하고 나아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아이들이 사회에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예수병원, QI활동 경진대회 개최

예수병원은 올 한 해 동안 예수병원을 찾는 환우들의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 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2년 QI활동 경진대회를 19일 개최했다.

'QI활동 경진대회'는 환자인권, 간호업무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진료 표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질 향상 활동을 텁별로 진행하게 된다.

2022년 총 16개 주제로 활동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연별표 5개 팀이 선정됐다.

이번 QI활동 경진대회 시상대상으로는 대상 소화기의학센터 '효율적인 내시경 관리 활동을 통한 수리비 절감', 최우수상 의공팀 우수상 영양과 재활센터 치료실 수술실이 선정됐다.

신총식 병원장은 "한 해를 보내며 죽적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는 예수병원 QI의 가장 큰 자신이다. 실증된 데이터로 진행된 QI 경진대회를 통해 예수병원은 보다 개선된 의료 환경을 2023년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수병원은 환자인권을 최우선으로 최고 수준의 환자인권 및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QI활동 경진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유원엔지니어링, 전주대에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9일 대학 본관 접견실에서 유원엔지니어링(주) 발전기금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박성규 대표이사와 박진배 총장, 흉인수 교육부총장, 김문규 인문대학장 등이 참석, 4,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약정된 기금은 전주대 신학과 경계찬 양학과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규 대표이사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해 전국 수퍼스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유원엔지니어링(주)이 동행해 준 덕분에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기계설비 기술사무소로 출발한 유원엔지니어링은 설계회사로 시작해 시스템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을 넓혀 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스위스 Gebert A 사이포니 우수배관시스템을 도입해 인천국제공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희망2023 모금 동참… 1000만원 기부



복지지원단(☎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성금 이어져



여울연예를 맞아 무주군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19일 (주)엔솔루션(대표 김병희)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무주자역 인재양성을 위해 사용해달리면서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출신 김병희 대표는 "우리 무주의 후배들이 맘껏 꿈을 꾸고 꽂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광설비 업체로 무주군이집과 안성·민나눔지역센터에 태양광 무상 설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업체다.

이어 알파문구 조은영 대표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조은영 대표는 "작년에 무주에 정착해 올해부터 알파문구를 개업했는데 무주군민의 성원 덕분에 문구점이 빠르게 정착 할 수 있었다"라며 "그 사랑을 무주의 아이들을 위해 기탁하고 싶다"고 전했다.

같은 날 무주군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가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해 달라면서 성금을 기탁했다.

무주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이호상·윤정순 회장은 "축운



의명의 기부천사 효자동에 100만원 성금 기탁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청소년적십자(RCY) 단원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장학금 대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RCY학생들을 각 학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선정했다.

올해 RCY장학금을 전달받은 대상은 전주솔네고등학교 3학년 장서윤 학생, 회신중학교 2학년 이수아 학생이며, 인당 학습지원비(100만원)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연간 전국의 8명 내외 RCY단원 중·고등학생들을 선정해 청소년적십자(RCY)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최아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임실군애향운동본부, 애향상 시상식·명사 특강

임실군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길수)가 지난 16일 임실치즈마을에서 제5회 임실 애향상 시상식 및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애향현장 낭독, 인사말 및 축사·명사 특강, 애향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애향상은 임실군을 빛내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태양성 재경향우회 사무총장과 최태호 재전향우회 회장이 각각 본상과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박길수 본부장은 "고향 사랑 실천에 보탬을 보인 애향인들을 선정하는 애향상 시상식이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됐다"며 "앞으로 꾸준히 고향 빛전에 앞장사는 인물들을 선정하여 지역 사랑의 마음으로 현신 봉사한 애향인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애향운동본부 기족분들께서는 '내 고향' 빛전을 위해서는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굳은 신념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군민회합과 지역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며 "가족분들 모두가 우리 군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